News p/02
서울 택시요금 9월께 인상

metro
메트로 2013년 6월 4일 화요일 제2745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파워걸 씨엘 솔로 성공데뷔

전두환 장남도 페이퍼컴퍼니 설립
NEWS p/02
쌍용차 회계 조작해 구조조정 의혹
NEWS p/03

조용필 함께 보며 가족애 바운스!

초중고 자녀 손잡고 공연장 나들이 부모 급증
콘서트·뮤지컬 즐기기 선진국형으로 점차 진화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조성일(46)씨는 지난 주말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손을 잡고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이문세 콘서트를 관람했다. 바쁜 일상에 치여 대학 졸업 이후 20년 가까이 음악을 잊고 지냈던 조씨는 즐거워하는 아내와 신기해하는 아들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가족이 공연장 나들이로 모처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공연 관람 문화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문세와 더불어 지난 주말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조용필의 단독 콘서트도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단위 관객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의 경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란 점에서 가족 관객들의 관람이 아주 낯선 풍경은 아니지만 가족 중심의 여가 생활과 문화 상품 소비가 한 번에 이뤄지는 현상은 다른 공연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서울재즈페스티벌 역시 가족 관객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7~9일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열릴 음악 페스티벌 레인보우 아일랜드도 가족을 위한 캠핑 시설 1000동이 이미 팔려나갔고, 약 5000명의 가족 관객이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파악하고 있다.

한 공연 기획자는 "소풍을 나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공연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제작자들도 작품 기획과 관객 티켓 설정·기획을 바뀌고 있는 관람 문화에 맞춰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뮤지컬도 가족 단위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대형 공연장인 블루스퀘어를 운영하는 인터파크씨어터 홍보팀의 김선경 팀장은 "수치상으로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위키드'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의 경우 회차당 30% 이상은 가족 관객으로 파악된다"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자 동반 예매율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가족 관객을 잡기 위해 업계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브로드웨이 42번가는 42세 이상이 2명 이상 예매하면 40%를 할인해주는 패키지 할인과 인터넷을 어려워하는 중장년 관객에 전화로 쉽게 예매하는 문화 쏙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캠핑의 유행처럼 불경기에 가족이 함께 즐기는 놀이문화 확산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비교적 저렴하게 도심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공연장 나들이가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레인보우 아일랜드의 홍보사인 포츈엔터테인먼트의 이진영 대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롤링 스톤즈의 공연장을 찾는 해외에서의 광경이 이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됐다"며 "문화의 세대 통합 기능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조성준 디지털기자 sunn@metroseoul.co.kr

"탈주범 이대우 봤다" 신고 봇물… 경찰 검문 강화 경찰이 3일 서울역에서 탈주범 이대우 수배 전단을 시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탈주범 이대우를 봤다'는 시민 제보를 접수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서울역 지하철역 10개 출구를 막고 역사 안을 집중 수색했으나 다른 시민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경찰은 검문검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대우 가족과 내연녀 2명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모든 버스·지하철·KTX 탄다

12월 어느 날 경기도민인 '한카드' 씨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경제IC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고 광명역에서 기차표를 구매해 부산행 KTX를 탔다. 도착한 부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벡스코 전시장에 가서 볼일을 마친 한씨는 부산 시내버스를 타고 고향인 해운대로 이동했다.

이처럼 하반기부터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기능을 가진 선불형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올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 시에는 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전국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3장(교통카드·하이패스카드·신용카드 등)의 카드가 필요했다. 국토부는 지역마다 교통카드 사업자가 달라 다른 지역과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함 때문에 2007년부터 표준기술을 개발하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호환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카드 단말기와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2010~2012년 3년간 국비와 지방비 97억6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로써 시외버스를 제외한 버스·지하철·기차·도로의 교통카드 전국 호환 인프라는 거의 갖춰졌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국토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그동안 선불 교통카드로는 타지역 이용 제한 및 고속도로 통행료, 열차표 발매기 등기에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전·포항·안동·영주 등 일부 지역처럼 전국 호환 교통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는 전 지역에서 호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일 서울역에서 경기도·철도공사·도로공사와 호환 협약식을 맺는다.

/김지성기자

서울 택시요금 하반기 인상

박원순 시장 '9월 결론'

현재 기본요금 2400원인 서울 택시요금이 올해 안에 인상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tbs 교통방송에 출연 "4년째 동결돼온 택시요금에 유류비 인상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대부분 다른 시·도가 요금을 인상했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상반기 안에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며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서울 강서구 신정 가스충전소를 방문해 택시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시는 현재 운송 원가 분석을 거의 마친 단계로 택시 업계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개인택시 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가스충전소와 법인택시회사 신촌·종로·강남 등지를 돌아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듀호기자

아직 남아 있을까… 내 어릴 적 꿈 3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외벽 '광화문글판'이 여름을 맞아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었다. '나였던 그 아이는…'으로 시작하는 새 글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유고 시집 '질문의 책' 44편에서 가져온 것으로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있던 어릴 적 자신의 꿈을 돌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참치 대박 3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한 직원이 연근해에서 대량으로 잡은 참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제주 연근해에서 잡힌 참치 8000여 마리 이날 위판됐다. 13~14kg짜리 참치도 상당수 잡혔다. 이렇게 대량으로 참치가 잡힌 것은 4년 만이다. /연합뉴스

꼬리 잡힌 전두환 비자금

장남 전재국씨 페이퍼컴퍼니 설립… "추징금 1672억 환수해라" 비난 봇물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날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4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재국씨가 2004년 7월 28일 '블루아도니스 코포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

2004년은 재국씨의 동생 재용씨가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를 받던 시기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가량이 재국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측은 재국씨가 이 페이퍼컴퍼니의 단독 등기이사이자 주주로 등재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서 내부 자료에 표기된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며 이 주소는 그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주소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페이퍼컴퍼니 수작 과정에서 그가 최소한 6년 이상 이 회사를 보유했으며 이와 연결된 해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움직였다는 정황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재국씨는 2004년 9월 22일까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페이퍼컴퍼니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공증서류가 버진아일랜드에서 싱가포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측은 "당시 전씨는 어떤 계좌에 예치해둔 돈을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유령회사 명의의 아랍은행 계좌로 급히 예치하려 했던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1672억원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며 미납액의 시효는 10월 11일 만료된다.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소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배동호기자 · sean@metroseoul.co.kr

뉴스&뉴스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확진 6명으로 늘어나

●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숨졌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사례로 신고된 사망자와 생존자 각 2명을 추가로 확진 판정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감염이 유력한 사례로 분류된 사망 환자 2명과 새로 확진된 생존 의심 환자 2명이다. /김유리기자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영장청구 주중 결론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주 중 결론 낼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원 전 원장에게 모두 적용한다는 입장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동호기자

대구 여대생 살해범은 지하철 공익근무요원

●대구 여대생 살해범이 지하철역에서 근무해온 공익근무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대생 살해 혐의로 지난 1일 검거된 조모(24)씨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한 역에서 지난해 8월 말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해왔다. 조씨는 범행 후인 지난달 28일과 30일에도 태연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리기자

수입 오리건주 밀 1차검사 GMO 검출 안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조작(GMO) 밀가루가 국내에서는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미국 농무성은 지난달 30일 미승인 GMO 밀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식약처는 해당 지역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를 취급하는 업체 5곳에서 샘플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벌였다. 검사 결과는 5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배동호기자

이재현 회장 "책임질 부분은 책임 지겠다"

CJ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검찰 3~4명 재소환 통보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그룹 측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 관계자들에게 경고할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이나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그간의 수사 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재소환을 통보했다. 그룹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핵심 관계자 3~4명은 일본·홍콩·중국 체류 등의 이유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새벽 처음으로 4만여 명의 전체 임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에 미안하다"면서도 "이번 시대로 조직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동호기자

구원투수로 돌아온 '박근혜의 입' 이정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 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55)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이 수석은 윤창중 성추문 사태로 사퇴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 후임으로 2007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비공식적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 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과 남성 몫 대변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홍보수석에 임명 새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이정현 수석이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도 3일 서울 중구 명동1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관광특구 명동지역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 & 뉴스

65세 넘은 실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65세가 넘은 사람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을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 전 12개월 안에 이직·해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라도 고용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승리기자

눈속임 할인표시 멜론·올레뮤직 공정위 제재

국내 유명 음원 사이트들이 애매모호한 단어를 쓰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올레뮤직)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정비실 50%할인', '올레클럽 30%할인' 등 마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표시했다. 또 멜론과 CJ E&M이 운영하는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회지가 상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김국헌기자

장미터널속 장미 3일 서울 중랑구 묵동 수림공원 장미터널에서 시민들이 흐드러진 장미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충치 없어진 아이들… 12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

세균 때문에 아이들의 이가 썩는 경우가 1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국민 구강건강 실태 조사' 결과 만 12세 아동의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세균 때문에 생긴 충치 개수)'가 2000년 3.3개에서 2012년 1.8개로 줄어들었다고 3일 밝혔다. 연령별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는 만 8세 0.7개, 만 15세 3.3개였다. /김태균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선비 최익현 의병을 일으키다

1906년 6월 4일 74세의 노유 면암 최익현이 전북 태인의 무성서원에서 창의의병을 일으켰다. 최익현은 흥조정에서 물러난 뒤 병자수호조약을 결사반대해 도끼를 지니고 상소를 올려 흑산도에 유배됐고 을미사변 후 항일운동을 전개하여 일사 5적의 처단을 주장한 바 있었다. 선생은 1백여 명으로 불어난 의병대의 항쟁 장소 순창으로 옮겨 나갔으나 의병을 해산하라는 고종의 칙지에 남원에서 통분의 해산을 한 후 대마도에 감금됐고 이듬해 1월 1일 단식 끝에 순국했다.

2646명 자른 회계조작

쌍용차 일부러 부실 부풀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합리화 의혹

꽥~꽥~ 명동거리 행진 3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나타난 새끼오리 다섯 마리가 거리를 이리저리 걸어다니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며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쌍용자동차가 회계 조작으로 유동성 위기를 조작, 부실 위험을 부풀려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우원식·은수미 의원 등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쌍용차범국민대책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허위 조작과 회계 조작을 통한 기획 부도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차가 직원 2646명 정리해고의 근거로 삼은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감시 조사의 비교했을 때 자산은 줄이고 부채는 키웠다며 기획 부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감시 조사에 8748억원으로 기록했지만 감사 보고서에는 757억원 적은 7991억원으로 기재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감시 조서(4625억원)보다 감사 보고서(5177억원)에 552억원 부풀려졌다.

심 의원은 "감시 조서는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계산한 내역이기 때문에 둘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계산 결과를 허위로 감시 보고서에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번 회계 조작 의혹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재차 주장했다.

/김민지기자 grace@metroseoul.co.kr

내일 금천에코데이 캠페인

서울 금천구는 '환경의 날'인 5일 구청 광장에서 금천에코라이프데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금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나도 에너지절약 실천가! 날마다~ 금천에코라이프데이'라는 주제로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린다.

▲기후변화 콘텐츠를 활용한 미션 수행하기 ▲태양광을 이용한 햇볕조리기로 삶은 메추리알 맛보기 ▲자가발전 자전거로 만든 솜사탕 맛보기 ▲태양광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즐기기 등이 이어진다. /배동호기자

광안대교 랜드마크로 우뚝서다

개통 10주년 맞아… 동서교통난 해소 중추 역할·문화 활성화 등 기여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가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광안대교 개통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지만 주요 효과로 교통난 해소, 도시 브랜드 제고, 문화 관광 컨벤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광안대교는 총 길이 5.2㎞에 이르는 해안순환도로망의 출발점이자 동서교통망의 중추로서 도심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광안대교 개통 전에는 남천동에서 해운대까지 30분 이상 소요됐으나 개통 후에는 5분 이내로 크게 단축됐으며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이 9만 대 이상으로 도심의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안대교는 미국 CNN에서 발표한 2012년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됐으며 영국 BBC도 광안리 등을 상세히 소개해 부산을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라고 극찬했다.

또 부산이 국내 7대 도시 중 브랜드 파워 3년 연속 1위 도시로 선정되는 데 광안대교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 등 부산 브랜드 파워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광안대교는 영화 촬영지로 인기가 높아 부산의 아시아 최고 영화·영상도시로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광안대교 개통으로 부산의 문화 관광·컨벤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광안대교로의 양호한 접근성으로 발전한 센텀지역에 영화 영상 컨벤션이 집적된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견인하는 등 부산이 세계적인 국제 관광 휴양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앞으로 광안대교를 명품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경관 조명사업과 번지점프대 등의 체험 관광자원 설치 등으로 브리지 오브 부산(Bridge of BUSAN)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안대교는 2003년 6월 7일 개통 이후 항만 물류의 대동맥이자 동서 교통난 완화의 중추 역할을 하여 동시에 관광자원화로 명실상부한 부산의 랜드마크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5대 거룩빼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국민석유주식회사는 3일 오전 부산 부산역 광장에서 '20% 싼 착한 기름 실현과 국민석유회사 성공 기원' 전국 자전거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민석유회사 성공을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 싼 착한 기름값' 캠페인

착한 기름값 실현을 위한 전국 릴레이 캠페인이 3일 부산과 목포에서 동시에 출발,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3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전국 16개 지역을 도는 '20% 싼 착한 기름 실현과 국민석유회사 성공 기원' 전국 자전거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캠페인단은 부산과 동시에 목포에서도 출발해 영남 충북권, 호남 충남권 등 전국 곳곳을 거쳐 천안에서 합류한 뒤 5일 서울에 도착한다.

주최 측은 서울 도착 후 '착한 기름값 실현'에 동참한 34만2700여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진위 부산 이전추진 본격화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혁신도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3일 오전 10시 위원회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는 오는 10월 부산 이전을 앞두고 기존의 사업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 중심의 전사적 전략 수립 및 조정과 보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

특히 부산 이전 과정에서의 주요 진행 사업, 기술 사업, 대관 업무, 정보화사업 등 영화인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대영화인 정책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운영 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혁신도시 이전 추진단은 지방 이전 전략 태스크포스(TF)와 글로벌스튜디오 추진 TF 그리고 실무 지원 TF로 운영되며 부산 이전에 따른 영화인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진드기 기피제 뿌리세요 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어린이 대공원에서 시민들이 등산로 입구에 비치해 놓은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고 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기피제는 팬살에 닿지 않도록 옷위에 골고루 뿌리고, 귀가시 즉시 샤워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부산시민 평균 행복점수 67점… 서울과 비슷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 시민의 행복 점수를 산출한 결과 67.2점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난 4월 15~24일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만 20세 이상 부산 시민 1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부산 시민의 평균 행복 점수는 67.2점으로 산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측정된 한국인의 행복 점수와 서울의 행복 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67.8점, 2011년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시민의 평균 행복 점수는 64.5점이었다.

인간 관계, 생활 여유, 경제 여건, 생활 환경 등 4개 영역으로 측정한 부산 시민의 행복 점수에서는 인간 관계가 73.2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기장군, 강서·수영구 등 8개 구·군이 평균 행복 점수보다 높았다.

조경·정원 신기술 박람회

내일부터 벡스코서

조경·정원 산업 신제품과 신기술 및 최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2013 부산조경·정원박람회(Landscape & Garden Show Busan 2013)'를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조경산업을 이끌어가는 8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디자인을 갖춘 공원시설물, 친환경 놀이시설물, 벽면녹화, 조경자재, 실내외 정원용품 및 원예자재, 다양한 가로등을 포함한 경관시설 등 다양한 품목들을 소개한다.

또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도 참여해 최근 경향을 반영한 실내조경, 사계절을 주제로 한 독특한 정원과 꽃을 주제로 한 화훼 조형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조각 작품과 돌과 나무가 어우러진 초대형 석부작 작품 등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토피어리 만들기, 다육식물 심기, 도자기 체험, 압화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과 함께 선착순으로 매일 참관객 1500명에게 무료로 조화를 나눠줄 예정이다. 무료초대권은 부산은행 각 지점에서 배포하고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 입장을 할 수 있다.

공익광고 32년 역사 한눈에

코바코 7일부터 지역순회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공익광고 캠페인의 지역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2013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코바코는 지난 2003년부터 공익광고 지역순회 전시회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도 추억의 공익광고를 비롯해 역대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등 220여 점을 지역민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 공익광고 32년 역사를 한눈에 조망해보고 칸, 클리오, 뉴욕페스티벌 등 세계 우수 광고제 수상작 및 미국·일본·중국의 공익광고를 전시한다.

올해 지역순회 전시회는 순천대학교와 선문대학교(아산) 전시를 마치고 부산을 거쳐 대구 등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재건 코바코 광고진흥본부장은 "이번 순회 전시를 통해 지역민에게 공익광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광고가 지역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순회 전시회가 각 지역의 공익적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1-7436~39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총괄 편집인	남궁호
서울 편집인	김종락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책임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5351~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21일 창간 2002.5.3일 등록

'100년 후 부산' 아이디어 찾아요

시, 청소년 UCC 작품 내달말까지 접수···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진행

부산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한다.

우선 부산시는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시정 참여 및 애향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부산 발전 50년 미래도약 100년을 위한 청소년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100년 후 부산은 무한 상상하다'를 주제로 하며 부산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누구나 장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작품은 100년 후 부산의 모습을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발하고 재치 있는 작품이나 100년 후 부산 시민의 매력·재미·숨겨진 멋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 등 청소년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소재의 제한 없이 응모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작품은 내달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응모 작품은 8월 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제15회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도 진행한다. 이 공모전은 '한국특성화 및 부산특성화' 2개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한국특성화' 부문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고 전국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또 '부산특성화' 부문은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부산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상품화한 것이면 된다.

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오는 11월 부산디자인센터 3층 강연장에서 열릴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시상설명회 참가자에게 전달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공예품, 패션 소품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 여행을 기념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다. 응모자는 일반 매장에서 바로 판매 가능하도록 완제품으로 만들어 출품해야 한다. 문의 051)790-1032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법률사무원 1기 수료식

부산경상대학교는 지난달 29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연제구가 주관하고 부산경상대가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협력해 시행한 '제1기 법률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이 수료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개강을 시작으로 2개월 간의 교육을 이수해 이번에 총 30명이 수료했다.

특화사업인 법률사무원 양성교육은 실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률 관련 기관 등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교육생들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등기실무, 소송 및 계약 실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유엔공원 참배하는 동심 현충일을 사흘 앞둔 3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참전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관광기념품 판매점 오픈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5일 오후 3시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에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열고 전시·판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홈플러스 해운대점 관광기념품점(이하 관광기념품점)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엄선된 관광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관광기념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

관광기념품점은 홈플러스 해운대점 지하 1층에 7.6평 규모로 들어선다.

전시 판매되는 기념품은 '2012년 부산관광기념품공모전' 및 '2012 대한민국 관광기념품공모전' 당선작들 등 총 50여개 업체 100여 점 이상이다.

또 공모전 수상작 외에 롯데 야구 응원물품이나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 해변같이 그려진 등 부산관광공사가 직접 발로 뛰어 발굴한 상품도 한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1단계 마무리

이달 중 첫 상업시설 분양

부산의 금융 허브 시대를 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복합개발 1단계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이달 중 첫 상업시설인 BIFC몰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BIFC 복합개발 1단계 사업은 BIFC63빌딩과 BIFC몰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BIFC몰은 지하 1층~지상 3층 1개 동 연면적 1만6512㎡ 규모 총 96개 점포로 구성됐다. 내년 6월 준공될 BIFC빌딩은 최근 금융 관련 공기업들과 잇따라 임주 계약을 체결, 금융중심지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BIFC63빌딩에는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남부발전·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대한주택보증·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들이 들어선다.

주변 부산은행 본점 사옥이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며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은 이달 중 신사옥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합 개발 1단계 시업은 부산국제금융센터PFV가 시행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총합 개발용지 4만7425㎡ 중 2만4856㎡를 개발하는 것으로 내년 6월 289m 높이의 BIFC 63빌딩과 BIFC몰이 완공 예정이다.

이어 문화상업시설, 오피스타워, 주거형 오피스텔, 비즈니스호텔 등이 들어서는 2단계와 3단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가짜 등급 인쇄된 쇠고기 라벨 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쇠고기 이력을 위조해 등급을 높인 쇠고기를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관이 가짜 등급이 인쇄된 라벨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박물관에서 간장게장 먹는 기분"

'프로간장게장' 해운대점 인기

하일성 위원부터 류현진 선수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야구박물관으로 통하는 '프로간장게장' 해운대점이 야구시즌을 맞아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프로간장게장 해운대점은 "198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오픈해 33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널리 알려졌다"며 "지난 2010년 일본 동경 아카사카점을 시작으로 오사카점, 서울 삼성점 오픈에 이어 지난해 12월 드디어 부산 해운점을 오픈해 성업 중이다"고 밝혔다.

또 "해운대점은 음식뿐만 아니라 류현진 선수의 유니폼과 프로야구 우승 배트 등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용품 약 300여 점이 전시돼 있어 야구박물관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 들어 최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문의 051)543-4126

'이스라엘 창업교육' 참가자 10일까지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년 해외창업인턴(이스라엘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6개월간 이스라엘에 파견해 현지의 전문화된 창업 교육을 받고 창업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벤처생태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학교(Tel Aviv University) 내 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스타타우(StarTau)'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해외창업인턴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창업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이나 4명 이하의 팀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어학 실력을 갖춰야 한다.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국내 기본 교육과정을 거쳐 7월 중순 이스라엘로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자들에게는 국내외 교육비와 왕복 항공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터키 반정부 시위 확산 2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시민들이 철제문과 나무판자로 방패를 만들어 진압 경찰에 맞서고 있다. 이스탄불 도심의 공원 재개발을 막기 위해 열린 집회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위로 1700여 명이 연행되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추산된다. /AP/뉴시스

"하시모토 이해 안돼"

반 총장 '위안부 망언' 비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위안부 망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 총장은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지난달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의 해명을 읽어봤다"면서 "국제사회 특히 전쟁 중에 피해를 당한 국가들은 그의 견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약 3분의 2가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교도통신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유신회에 대해 기대를 하느냐는 질문에 65.6%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기대한다'(27.3%)는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조선미기자

女 브래지어 착용 금지 男 고무줄 바지만 허용

중국에서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탐지기를 동원한 초강도 부정행위 방지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장시만보 등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은 오는 7~9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입시험(기오카오·高考)에서 시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몸과 소지품을 검사해 금속탐지기에서 소리가 나면 입실을 막겠다는 것.

지린성 입시관리 당국은 치아교정을 받거나 수술로 인해 몸 안에 금속물질을 지닌 수험생은 사전에 지린성 지역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지참하도록 했다.

이런 엄격한 입시 관리 대책이 도입되면서 지린성의 일선 고등학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각 학교는 고3 수험생들에게 시험 당일 허리띠가 필요 없는 고무줄 바지와 금속물질이 부착되지 않은 합성수지 샌들을 착용하고, 여학생은 브래지어 대신 러닝셔츠를 입도록 했다. 또 학교로 시험날 입고 갈 옷을 미리 가져가 금속탐지기 검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예행연습까지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고강도 부정행위 방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며칠 전 학교에서 금속탐지기 통과 예행연습을 한 수험생은 "검역을 거쳐 시장으로 출하되는 동물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병원에서 치아교정을 했다는 진단서를 받은 뒤 부정행위를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다"면서 "금속탐지기도 사람이 운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검사자가 매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춘의 다른 수험생은 "진단서를 떼거나 예행연습을 하는 불편이 있지만 이런 노력이 사회 각계에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욱 공정한 입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market index <3일>

코스피	1980.57	(-11.48)
코스닥	580.41	(-5.48)
금리	2.78	(변동없음)
환율	1129.50	(-1.50)

뉴스 & 뉴스

중기 연대보증인 채무 경감

●이달부터 중기 연대보증인 1만 2000명의 채무가 경감된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는 기업이 기업 회생 절차로 기업 채무 감면을 받을 때에 한해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보·기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5월 28일 이후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파산선고로 면책 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 채무자가 대상이다. /김재홍기자

소비자물가상승률 1%… 'D의 공포' 부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째 둔화하면서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1999년 9월의 0.8% 이후 13년8개월 만의 최저 오름폭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1년 8월 4.7%로 고점을 찍고서 이후 지속적인 둔화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농산물(-3.7%)과 석유류(-2.6%)의 가격 하락이 특히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저물가 기조를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보면서 저성장 저물가가 2년 정도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물가안정 범위(2.5~3.5%) 하한선을 7개월째 밑도는 점이 우려 요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의 수석연구원은 "물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기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hjkim1@

카드론 금리 '은행대출의 4.3배'

연평균 16%P 더 비싸…전업카드사 26~28% 받기도

'20.6% 대 4.73%'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시중은행의 연간 평균 대출금리다. 카드사 이자가 은행보다 4.3배나 높다. 평균적으로 15.87%포인트나 이자를 더 많이 받고 있다.

카드론 이용자들이 은행 창구 문턱을 넘기 어려운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라고 보면 초저금리 시대에 고금리 이자 부담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또 카드론 중에서도 평균 금리를 넘어선 20% 이상 고금리 사용자는 전업계 카드사에 집중돼 있었다.

3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론(5월 31일 기준) 적용 금리대별 회원 분포현황 자료를 보면 현대카드의 카드론 사용자 중 4~26%의 금리 적용 회원 비중이 21.05%에 달했다. 20~24%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중도 20.7%였고, 최고 금리인 26~28% 구간에도 19.97%의 회원이 몰려 있었다.

삼성카드도 24~26%의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회원이 전체의 14.64%나 차지했다.

이는 28.01%의 회원이 14~16% 적용 금리 대상인 신한카드와 18~20% 적용 금리 대상자가 전체 이용 회원의 41.22%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와 대조를 이뤘다.

물론 은행계 카드사들이 전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카드론 이자를 적게 받는다지만 이들도 평균 18%대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주 이용자는 저신용 서민들

문제는 카드사 고금리 대출의 주요 대상이 저신용·저소득층 서민이라는 점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대출자 중 은행을 이용하는 비중은 15.2%에 불과했다. 이는 저신용·저소득 서민 10명 중 7명가량은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카드론 대출 규모는 더 늘고 있다. 2010년 15조7000억원이었던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9조6000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4.8%나 증가했다.

/김재홍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거품을 슬러시로… 얼얼한 기린 맥주 기린 맥주 홍보 모델들이 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이치방 가든' 매장 앞에서 -5도로 얼린 거품을 슬러시처럼 올려 마시는 생맥주 '기린 프로즌 나마'를 소개하고 있다. 기린 맥주는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간 신제품 홍보를 주어진 일환으로 가로수길 이치방 가든 매장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두산 서열식 인사제도 타파

두산그룹이 서열식 인사제도를 없애는 파격을 시도한다.

두산그룹은 개인별 역량 육성에 초점을 둔 신(新)인사 평가 및 보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인사고과 때 점수를 매겨 석차순으로 임직원을 서열화하던 평가 방식을 없애고 연례적인 대규모 승진 인사 결과를 대내외에 발표해오던 관행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국명기자

30대 재벌 내부거래 줄었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비난받은 국내 30대 재벌그룹의 내부 거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30대 재벌그룹의 2012년 계열사 간 내부 거래 합계는 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1조7000억원(-1.66%) 감소한 수치다.

/김형철기자

벤츠·토요타 한국에 협공

신형 '더 뉴 E-클래스'와 '엔저 할인' 내세워 수입차 점유율 15% 도전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넘어선 수입차 업체들이 저변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와 대중 브랜드 토요타가 방점을 찍는다.

각각 신형 E클래스와 300만원 할인이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내세워 점유율 15% 돌파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벤츠는 3번 중형 세단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E클래스'를 이달 말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E클래스는 2009년 9세대 모델 출시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과 향에 효율성과 기술성을 업그레이드했다. 수년간 BMW 5시리즈와 판매 1위 경쟁을 해온 E클래스는 여전히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 중 하나다.

특히 이번 모델에는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인 '더 뉴 E 300 블루텍 하이브리드'가 등장한다.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제급 위인 S클래스의 3.0 디젤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국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20km/ℓ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차는 이보다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 E클래스의 가격은 미정이다.

엔저 날개를 단 토요타는 지난달에 이어 6월에도 대대적인 가격 인하 공세를 펼친다.

지난달 캠리 가솔린(2500cc),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등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한 결과 토요타가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운 데 힘입어 가격 할인을 연장했다.

토요타는 지난달 1차 가격 할인 행사 결과 캠리 가솔린 712대, 캠리 하이브리드 173대, 프리우스 305대 등 총 1316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캠리 가솔린과 캠리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에게는 300만원을, 캠리 V6 구매 고객에게는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프리우스 구매 고객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PC방 금연존 지정 연말로 연기

PC방 업주-10대부모 희비

PC방 전역을 금연존으로 정하는 강제 수단이 미뤄짐에 따라 PC방 사업주와 청소년 부모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둠으로써 단속에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정책에 확정되자 PC방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PC방을 먹여 살리는 대다수 고객이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인데 금연을 강제할 경우 매출이 급감한다는 논리다. 즉 담배 피우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이들이 PC방을 찾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청소년 부모들은 흡연을 방치하는 PC방 탓에 어린 나이에 담배를 배우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PC방 업계가 생계를 담보로 어린아이들의 공부할 시간은 물론 건강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담배를 배운 나이가 어릴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금연 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담배를 끊기 어려워지는 만큼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마트에 컴백한 비닐 쇼핑백 3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홍보도우미들이 친환경 일회용 봉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에 해가 없는 친환경 일회용 봉투를 5일부터 전 지점에서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뉴스

가입 편한 고령자 맞춤 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 판매 중이다.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 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김지성기자

ASK가 만든 혁신=SK이노베이션

호평 받는 새 광고 시리즈 회사 정신 담은 카피 신선

"달걀이 돌을 깬다는 말은 상식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SK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ID: JLG12)

"자신의 기업명을 'ASK'라는 것으로 연관지어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라는 카피로 SK이노베이션을 잘 드러냈다."(ID: DLSTJWLSD)

SK이노베이션에서 선보인 'ASK 이노베이션' 광고 캠페인이 네티즌에게 호평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새롭게 내세운 슬로건은 'ASK 이노베이션.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다. 회사 이름과도 닮아 있는 이 슬로건에는 '왜(ASK)'라는 물음에 SK이노베이션이 생각하는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숨어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광고는 '끈청', '정신', '종합' 등 3편으로 제작됐다. '끈청' 편은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과 혁신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신' 편은 혁신적인 미래는 풍족한 자원이나 뛰어난 기술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질문을 통해 창조되는 것이라는 점을 표현했다. 또 '종합' 편은 50년간 한계와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며 이뤄낸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성과를 담았다.

김정기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한계의 상황과 고정관념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물음의 중요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ASK 이노베이션' 캠페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삼성IT 리뷰 - 에이수스 미모패드 스마트

와이파이 빵빵 터져주는 센스

쿼드코어 프로세스 탑재 앱백업 등 전용앱도 매력

애플의 '아이패드', 삼성의 '갤럭시노트 10.1'은 어엿한 스마트패드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그나마 아이패드는 독자적인 OS가 있지만 갤노트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빌려 쓰고 있다. 즉 애플과 삼성의 경쟁 업체는 안드로이드OS를 끌어다 쓰되 나름의 차별화를 해야 하는 셈이다.

최신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탑재한 에이수스의 10.1형 '미모패드 스마트'는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단 엔비디아 테그라3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스펙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하다.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해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쿼드코어 칩 사용 여부는 통신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써보면 아이패드4나 갤럭시노트 10.1에 버금가는 속도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운드 시스템, 저장 공간,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본 하드웨어 성능은 크게 앞서기도 뒤처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모패드 스마트의 또 다른 매력은 무엇일까.

다름아닌 에이수스 전용 앱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호환되는 문서를 읽고 쓸 수 있는 '폴스토리지 오피스',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앱 로커', 내장 스토리지나 SD 카드에 설치된 앱 백업을 위한 '앱 백업',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읽고 쓰고 메모할 수 있는 '수퍼노트 라이트'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9.9mm의 두께와 580g의 무게에서 빛나는 탁월한 휴대성은 어쩌면 미모패드 스마트의 가장 큰 경쟁력일지 모른다. 가격은 40만원대. /박성훈기자

MS 더 새로워진 '윈도8.1' 한번에 여러 앱 변경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8의 성능을 개선한 '윈도8.1'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3일 공개했다.

8.1은 윈도8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컴퓨터를 켤 때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에서 시작하는 기능,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앱)을 한꺼번에 이동·변경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카메라 앱에서 직접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과 사용 빈도에 따라 앱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도 새로 넣었다.

윈도8.1은 올해 하반기 중 윈도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MS는 26일부터 열리는 MS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윈도8.1의 미리보기(프리뷰) 판을 상세하게 전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유저님, 소원을 말해봐!

넥슨 '메이플' 캐릭터 밸런싱 향상 등 게임업계 고객불만 적극 대처 '변화'

남양유업 등이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때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업종의 기업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참고하면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십수년간 고속 성장을 하다 지난해부터 정체기에 들어선 게임 산업이 대표적이다.

평창을 거듭하는 동안 고객 민원도 빗발쳤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했던 게임 기업들은 성장세가 꺾이면서 그제야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달라진 기업의 태도에 소비자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업계 1위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사진 아래)는 최근 오픈 10주년을 맞았지만 지난해부터 동시 접속자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강력의 등장, 스마트폰 게임으로의 고객 이동과 같은 외부 요인도 있지만 유저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넥슨은 지난 3월 '캐릭터 밸런싱' 업데이트를 했다. 캐릭터 간 균형에 맞지 않아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이 생긴다는 유저의 컴플레인을 파악,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콘텐츠 업데이트뿐 아니라 시장 변화에도 발맞춰 게임을 개선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유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블루홀 스튜디오의 MMORPG '테라'의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테라, 최초의 커뮤니티 콘텐츠 '연맹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지만 정작 유저들은 새로운 성격의 콘텐츠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블루홀은 연맹 시스템만을 위한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 적극적으로 유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주 실시된 연맹 훈련소(뮈) 개편에 유저들은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후속 대응으로 유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 게임은 상대적으로 서비가 작고 악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모바일 고객센터 앱을 출시했다.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유저와의 실시간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실시간 답변, 대화형 FAQ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저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위메이드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하반기 삼성-애플-팬택 신제품 전쟁

삼성전자와 애플, 팬택이 올 하반기 신제품으로 혈전 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갤럭시S4를 출시한 삼성전자는 3분기 중 주력 제품인 갤럭시노트3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식 출시에 앞서 삼성전자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3에서 갤럭시노트3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갤럭시노트3는 5.5인치인 갤럭시노트2보다 큰 6인치급 화면과 높은 선명도를 갖춘 모델이란 후문이다.

한편 애플은 하반기 중으로 아이폰5의 후속 제품인 아이폰5S 또는 아이폰6를 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4인치 화면과 지문 인식 기능이 지원되는 아이폰5S 출시가 유력할 전망이다.

팬택도 새 전략 스마트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은 올 1분기에 6인치급 대화면의 베가 넘버6, 2분기에 베가 아이언을 각각 내놓으며 분기마다 새로운 모델을 공개해왔다.

베가 아이언의 경우 스티브 잡스가 이루지 못한 세계 최초 일체형 금속 테두리인 '엔드리스 메탈'을 구현해 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팬택의 3분기 신제품이 LTE-어드밴스드와 스냅드래곤 800 프로세서를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

돈 벌고 경력 쌓고…'알짜 알바' 잡아라

취업문 뚫을 직무별 맞춤 아르바이트 총정리

사무직 대기업·관공서 도전…서비스직 레스토랑 주목

"돈만 버는 아르바이트는 이제 그만. 취업까지 노려야 '알바의 완성'."

최근 구직자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어떤 알바 경험이 있는가', '알바에서 어떤 걸 배웠나' 등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이 면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의 도움을 받아 직무별 채용문을 활짝 열어주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본다.

◆ **정 사무직을 노린다면** – 대기업과 관공서 아르바이트가 제격이다. 조직 생활을 미리 해볼 수 있고 다양한 업무 체험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서울시청을 비롯해 강북·은평·광진구청 등 대부분의 시·구청 공공기관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를 모집 중이다. 대기업 아르바이트를 노린다면 현재 LG전자·삼성 등에서 진행 중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다.

◆ **해외 업무직을 희망한다면** – 외국인을 접할 수 있거나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외국계 기업 아르바이트를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 상급 수준의 회화·작문 능력이 필요한 곳이 많고 단순한 사무보조일지라도 엑셀·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 우대 조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IT·디자인 직무를 원한다면** –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찾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업무의 이름이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용 공고에 나온 직무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경력에 도움되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르바이트에 지원할 경우 이력서뿐 아니라 공모전 입상 경력이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을 함께 제출하면 유리할 수 있다.

◆ **전문 서비스직에 도전한다면** –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 등 전문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서부터 관련 분야 취업을 희망한다는 포부를 확실히 어필해두는 것이 좋다.

사무직 등에 비해 체력적인 소모가 많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힐 수 있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마인드의 소유자나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하유진기자 lemisee@metroseoul.co.kr

나도 명품시계 조립해볼까 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관에서 열린 '워치 메이킹 마스터 클래스'에서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예거르쿨트르 시계 장인 자노 뷔도박권(씨)이 모델과 함께 칼리버875 분해 및 조립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작년보다 4.3% 늘린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자리가 대거 열린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지자체들이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1504명의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신규 채용 규모 783명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기존 대학 수준의 전공과목인 사회복지학개론이나 행정법총론 외에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이수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돼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가 수월해진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00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298명, 경상북도는 121명 등이다.

필기 시험은 서울시는 9월 7일, 다른 시·도는 8월 24일 치른다. 원서 접수는 시·도별로 기간을 달리해 지자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예조 12월이었던 면접 일정을 10~11월로 앞당겨 12월 1일부터 신규 채용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된 시행 일정을 앞당겨 올해 선발되는 인력이 최대한 빨리 일선 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f@

이국명 기자의 투잡 강의 체험기
취업전문강사 ④

이젠 직무시대… 환상부터 과감히 깨야

"이제는 직무 시대입니다."

지난달 30일 커리어에서 진행된 '취업전문강사 양성과정' 수업에서 던져진 메시지다. 사회전반으로 '열린 채용'이 확산되면서 직무 중심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인적성 검사도 직무 중심 채용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사는 설명했다.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해 맡은 사무를 뜻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직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흔한 IT·금융 등은 직업이고 경영지원·생산 설류·구매 등이 직무다.

최근 구직 시장에서 직무가 직업보다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 우선 구직자에게 직무는 바로 직장 생활의 버팀목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1년 이내) 퇴사율이 무려 23.6%에 달했다. 어렵게 난 취업난을 뚫고 입사한 인재 5명 중 1명이 스스로 그만둔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조직·직무 적응 실패(43%), 근무 환경 불만(14%) 등 직무와 관련된 것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직무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묻지마 지원'을 했다가 실망한 나머지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기업에게도 직무는 중요한 화두다.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직무 중심 인사제도 등의 도입을 서두르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취업 컨설팅 현장에서 구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직무를 물으면 금융 또는 'IT'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강사는 설명했다.

직무 선택의 방법론도 제시됐다. 직업정보시스템, 기업 채용관 등에서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 분석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막연한 환상부터 깨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한 기자의 화려함만 믿고 도전했다가 실상을 목격하고 한동안 방황했던 기자 초년 시절을 떠올리니 직무 분석의 중요성이 저절로 이해됐다.

/이국명기자

www.metroseoul.co.kr
2013년 6월 4일 화요일

현장형 호텔·관광·외식산업 거목들 '쑥쑥'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개교 12주년을 맞은 경희사이버대는 탁월한 교수진과 우수한 교육 콘텐츠, 100% 자체 제작 시스템과 최상의 온라인 인프라를 비롯해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금 수혜율, 경희대 캠퍼스 및 의료기관 이용 시 제공되는 동문 혜택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

◆ 온라인+오프라인 캠퍼스 낭만도 두 배

경희사이버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오프라인에서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캠퍼스 생활이다.

축제·멘토 체육대회·총학생회, 봉사활동 등의 재미를 대학 생활 곳곳에서 즐기는 것은 물론 해외 탐방·어학연수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이에 더해 스터디, 멘토링 프로그램, 오프라인 특강, 유명 강사 초청 강좌, 학술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학문적 소통도 활발하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관광·외식학부 역시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전문과정 실습 및 인턴, 해외 실습, 대규모 박람회 참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전문가 특강 등 학교 생활과 공부는 물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인맥 네트워크까지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호텔·관광·외식학부의 매력을 알아보자.

/제등호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 다음달 4일까지 2학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4일까지 201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학과는 ▲정보 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9개 학과다. 신입생의 경우 고교 졸업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편입생은 전문대 졸업자 및 대학에서 35학점 또는 70학점 이상 수료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대학원도 현재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13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문의: 학부 02)959-0000(www.khcu.ac.kr/ipsi) 대학원 02)3299-8808(grad.khcu.ac.kr)

◆ 개설 학과 및 대학원 개설 전공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물류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구 외식농수산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MBA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호텔·관광·외식학부 학과 소개

▪ 호텔경영학과 '경희' 전통 잇는 전문 호텔리어·외식 전문가 요람

호텔·외식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호텔 산업' 하면 경희를 떠올린다.

경희사이버대 호텔경영학과는 경희의 브랜드와 전통을 잇고 있다. 화려한 교수진이 대표적이다.

호텔경영학과는 호텔 및 관대 산업 등에서 실무 경력을 갖춘 전임 교수진은 물론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들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실무 전문가들은 각종 특강, 실무 위주의 교과목을 담당한다. 호텔경영학과의 교수진은 '조화롭우며 탁월하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호텔·외식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탄탄한 교육과정은 호텔경영학과의 자랑이다. 또한 최신 트렌드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외식 창업, 와인, 커피 산업과 같은 교과목을 구성해 현장감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특강,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커핑의 마스터'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케네스 대이비즈를 초청해 진행한 커피 특강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외식기업 현장 학습&총주방장 특강', '와인&칼리더너', '일본 사케 맥주공장 견학' 등의 현장 학습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특히 지속적으로 '해외특급호텔 현장 학습&OJT'를 실시해 호텔 관련 실무 및 모의 면접 활동까지 체험을 통해 다양한 실무를 익혀볼 수 있다.

▪ 관광레저경영학과 '情&Fun' 즐거움 배우는 곳… 취업률도 100%

관광레저경영학과는 '정&펀(情&Fun)'의 학과 운영 정신을 기반으로 관광 활동을 위한 지역 분석 능력, 상품 개발을 위한 적극적 체험 자세, 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연구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관광 레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른 이론 교육은 물론 국내외 관광지 조사 등의 관광 분야 현장 교육 활동과 탐험 레저, 지상레저, 수상 레저, 항공 레저 등 모든 레저 활동을 현장에서 체험 및 실습함으로써 관광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며 사회 진출을 준비한다.

이처럼 관련 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연구·경험·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관광 상품을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재학 중 확대한 많은 관광 관련 연구 활동 및 상품 개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실전형 관광 레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과 동시에 2개 이상의 레저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도 다수다. 이에 힘입어 취업률은 100%에 달한다. 또 학문적 기반도 우수하다. 10여 년에 걸쳐 경희대 대학원 등에 50명 이상이 진학해 관광학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있다.

더불어 학과 특성화 사업의 일환인 수상 레저 실습과 스쿠버다이빙, 승마, 레저용 경비행기 체험, 보트 조종면허 실습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뿐만 아니라 '할여사', '호리호리' 모이레 등 교수들의 지도 아래 관심 분야별로 조직된 동아리 활동도 왕성하다.

▪ 외식농산업경영학과 외식+농산업 전문가 키우는 대한민국 최초 학과

'Farm To Table', 외식농산업경영학과를 대표하는 말이다. 외식농산업경영학과에서는 식자재부터 식탁에 오르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과정을 공부한다.

외식농산업분야의 생산, 가공, 마케팅 등 총체적인 산업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외식산업과 농산업의 융·복합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외식농산업경영학과의 강점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의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외 외식농산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실천 실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외식농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외식업, 농촌 관광 레저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론과 한식 세계화, 농촌 개발 등에 대해 공부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외식업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식농수산 전시 및 기획' 교과와 연계해 매년 국제 규모의 푸드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농수산물 장터를 개최하던 것에서 활동을 확대해 5년 전부터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체험형 푸드 전시회인 '푸드 위크(FOOD WEEK) 2012'에 재학생이 직접 참여했다.

또한 해외 벤치마킹 투어를 떠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태국을 방문해 외식·관광산업을 살피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서울현충원「한사람 한송이 헌화운동」
당신이 바친 한송이 꽃, 곧 나라사랑입니다
문의 ☎ 02) 826-6234

6·25 전사자 유해발굴

당신의 관심과 참여가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 직접 매장, 목격, 들은 사실 (유해발굴시 포상금 지급)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참여

· 거주지역 보건소 방문, 전화신청 가능 (자가채취)
※ 현역장병 참여 : 소속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신청
참여장병에게 문화상품권, 위로휴가 혜택

현충일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행사

· 2013년 6월 6일 (목) 09:00~17:00
국립서울/대전현충원 잔디광장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전 화: 1577-5625 (오! 6·25)
인터넷: www.withcountry.mil.kr

‘시카고 핫 파티’로의 초대

청담동서 7월 1일 개최

뮤지컬 '시카고'가 7월 1일 오후 7시30분 서울 청담동 클럽 엘루이에서 '시카고 핫 파티 시즌3 — 재즈 & 빅밴드(Jazz & Big Band)'를 개최한다.

이번 파티는 인순이·최정원·성기윤 등 뮤지컬 '시카고' 전 출연진이 출연하고 박칼린이 이끄는 14인조 빅밴드도 함께 자리해 풍성하고 웅장한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특히 올해 록시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 아이비와 오진영이 깜짝한 공연 등 준비하고 있다.

또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2' 출연자인 댄스 스포츠 선수 이지은과 뮤지컬 배우이자 프로 댄서인 최인우가 선사하는 열정적인 라틴댄스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한편 공연 시작 전에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인 헤어 ... 기념사진 촬영 등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6월 3~21일 신시컴퍼니 홈페이지와 공식 SNS, 인터파크 플레이디비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7월 6일~8월 31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김민준기자

뮤지컬 ‘러브 인 뉴욕’ 티켓 70% 할인 이벤트

뮤지컬 '러브 인 뉴욕-올 댓 재즈'가 누적 관객 30만 명 돌파를 기념해 70% 할인하는 통 큰 이벤트를 진행한다.

뉴욕과 재즈라는 스타일리시한 소재로 만든 이 작품은 2010년 초연 이래 700회 공연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최근 누적 관객 수도 3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대학로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로 장소를 옮겨 3개월 동안 학생 3만, 일반 관객 4만 명이 공연장을 찾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연기획사 윤이트컴퍼니는 이달 23일까지 평일·주말 구분 없이 전석 70% 할인한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만원에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연 내내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형태와 마센미 화장품·쉬드 뷰티 샵등 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문의 070-7630-2588 /윤인선기자 mjkim@

wnd8686@naver.com

<일본 인기가수>

하마사키 ‘울트라 코리아’ 선다

VVIP 호스트 자격 참가

일본의 인기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가 국내 최대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이하 울트라 코리아)에 참가한다.

하마사키는 공연 첫날인 14일 VVIP 호스트 자격으로 울트라 코리아에 나선다. VVIP 호스트는 해외 클럽이나 초대형 파티에서는 일반화된 역할로 유명인들을 대표해 일반 관객과 함께 공연을 보거나 파티를 즐기며 DJ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마이애미에서는 스페셜 게스트로 마돈나가 출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둘째 날인 15일 공연에는 국내 최고의 스타가 VVIP 호스트로 나설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아민반뷰렌·아비치·아프로잭 등 세계 최정상 DJ 등 60팀이 참가하는 울트라 코리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국내 연예인들과 셀러브리티들이 티켓을 구매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중국·대만·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된 울트라 코리아 아시아 프로모션 투어도 성공적으로 마쳐 아시아 최고의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울트라 코리아는 14~15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서문 주차장에서 개최된다. VIP와 VVIP 티켓은 매진됐다.

/유순호기자 cahn@

‘아메리칸 이디엇’ 9월 공연

세계적인 펑펑크 밴드 그린데이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의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팀이 9월 5~22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투어 공연을 펼친다.

2009년 9월 초연돼 2010년 4월 처음 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이 뮤지컬은 암울한 교외 지역에서 살던 세 청년이 각자 다른 운명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9.11 사태 이후 미국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과 정체성의 혼란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아티스트의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별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존의 주크박스 뮤지컬과 달리, 그린데이의 콘셉트 앨범인 '아메리칸 이디엇'의 주제와 내용을 충실하게 옮긴 작품이다. /박찬형기자 tale1427@

대선주조

예는 다르다!

즐거워 예는 83년 전통의 향토 기업인 대선주조에서 최첨단공법과 최신위생설비로 만든 저도 소주입니다. 수돗물이 아닌 기장 삼방산 지하 220m 자연이 만들어낸 순수한 천연암반수 10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거워 예에 들어있는 토마틴은 아프리카 열대삼림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매로부터 추출되며 기존의 첨가제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가의 자연추출 성분으로 소주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최고 수준의 재료만 사용하는 즐거워 예는 부담없고 부드러우며 소주의 감칠맛을 충분히 살린 16.7도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즐거워 예는 마실때는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 생각한 고급 소주입니다.

C1

(자매품)

FAMILY SALE

~70%

바바라 패밀리세일

2013. 6. 9(일) ~ 6. 11(화)

AM11:00 ~ PM08:00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 출구 선릉역 방향 200m 지점

-행사안내

1) 행사기간 동안 구매한 제품은 교환/반품 불가합니다
2)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3)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이벤트

패밀리세일 기간동안 매일 3명을 추첨하여 바바라 슈즈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 babaramall com을 참고하세요

(주)BABARA&Co

무대선 파워걸 무대밖선 소심걸

'나쁜 기집애'로 성공적 솔로 데뷔 씨엘

강력한 무대 위 카리스마를 내뿜는 2NE1 리더 씨엘(22)이 데뷔 4년 만에 첫 솔로곡 '나쁜 기집애'를 발표하고 당당한 여성의 대표 주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자신의 본모습을 그대로 노래에 담았다는 그는 아직 보여줄 게 많다고 외쳤다.

–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은

1년 전 테디(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오빠와 말장난을 하다가 나온 얘기다. 그 이전에 연습생 시절 페리(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오빠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랩 문구 중 하나였는데 무척 마음에 들어서 나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해왔다.

– 나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다. 좋은 뜻으로 멋있다는 말이다. 2NE1 안에서도 그랬고, 여성의 파워를 강조하고 싶었다. 독립적인 여성을 표현했다.

– 음원차트에서 절대 강세를 보인 2NE1의 음악에 비해서는 성적이 못 미치는데

양현석 사장님도 순위와 상관없이 즐기라고 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줄지 몰랐고, 씨엘이라는 사람을 알리게 됐다는 점에 감사한다.

– 어떤 점에서 이번 활동에 만족하나

여성 래퍼로서 2NE1에서 못다 했던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싶었다. 앞으로 또 솔로 활동을 한다면 보컬리스트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아직 못 보여준 게 많다.

– 뮤직비디오에서도 그렇고 강렬한 패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팀에서든 솔로 활동에서든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뿐이다. 사실 붓 갈퀴와 금니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주위에서 적극 권유해 했다. 순금으로 만든 것으로, 뮤직비디오 의상 중 가장 고가의 아이템이다.

원래의 제모습 노래에 담아 '나쁘다=멋있다' 의미 있죠 여성래퍼로만 보지 마세요

– 노랫말 중 '두 더 언니'는 무슨 뜻인가

언니는 나이 많은 여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춤의 동작을 표현한 말이다. 힙합 문화에서 온 말로 '틀께 언니'라는 춤을 추자는 뜻이다.

– 자신을 노래로 적극 표현하는 지드래곤의 '원 오브 어 카인드'가 떠오른다

지용(지드래곤) 오빠는 유쾌하고, 저는 세다는 차이가 있다.

– 무대에서의 폭발력은 어디서 나오나

나도 잘 모르겠다. 무대에만 서면 미친 사람 같다고 주위에서 말한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늘 무릎에 상처가 나 있고 목이 쉬어 있다. 많은 사람과 호흡하며 얻는 에너지가 좋다. 어떤 것보다 아찔하고 중독성이 있다. 하지만 씨엘과 이채린(본명)은 확실히 구분된다. 정반대의 여자다. 평소에는 내성적이고 요리를 좋아하며, 지미 입고 걸 좋아하는 여자다.

– 요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요리도 예술이라 생각한다. 재료 선택부터 접시에 담는 데까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리 선생님도 있다. 한동안 쿠키 만드는 데 빠졌는데 회사 사람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주기도 했다.

– 나쁜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쁜 남자를 귀여워한다. (나쁜 남자를) 경험할 시간이 없지만, 친구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재미있다.

– 이효리의 '배드 걸스'와 경쟁해 화제다

7년 전 연습생 때 만나보고 지난 일요일 SBS '인기가요'에서 처음 봤다. 선배님이 자게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 씨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나 자신을 래퍼로 한정하고 싶지 않다. 음악, 패션 등 문화적으로 내가 즐기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다. 평생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해나가고 싶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선홍

star bag

유세윤 후임으로 '라스' 복귀

방송인 **김구라**가 친정인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복귀한다.

3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제작진은 음주운전 자수로 하차한 유세윤의 후임으로 김구라를 내정했다. 김구라의 복귀는 지난해 4월 위안부 막말 논란으로 하차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프로듀서 스펙스 신곡 참여

엠넷 '보이스 코리아' 시즌1 우승자인 가수 **손승연**이 DJ 겸 일렉트로닉 뮤직 프로듀서인 스펙스의 신곡에 참여했다.

10일 공개될 스펙스의 '업 앤 다운'은 손승연이 데뷔 후 처음 피처링에 참여한 곡으로 일렉트로닉 장르와 이색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스펙스는 싸이의 '나팔바지'·'강남스타일' 보이'의 리믹스로 주목받은 실력파 일렉트로닉 뮤직 프로듀서다. 손승연은 다음달 신곡 '미친게 아니라구요'를 발표한다.

정규 2집으로 다음달 컴백

JYJ **김준수**가 다음달 솔로 정규 2집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3일 "이번 앨범은 여름 시즌에 맞춰 감각적인 감각을 가미하며 발라드와 퍼포먼스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데뷔 앨범은 리패키지 앨범을 포함해 18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중국·동남아·칠레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美 '인스타일'에 화보 실려

새 영화 '국제시장'의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는 배우 **김윤진**의 패션 화보가 세계적인 패션지 인스타일 6월호 미국판에 실렸다.

자이온 엔터테인먼트는 3일 "김윤진이 최근 미국 팜스프링스에서 이뤄진 화보 촬영에 참여했다"며 "보그 등에서 활동한 베테랑 사진작가 겸 포인터가 촬영을 맡았고 명품 업체들이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후원했다"고 전했다.

무서운 이야기2

은밀하게 위대하게

부진 늪에 빠진 한국영화

'몽타주'만 톱5… 개봉 앞둔 '무서운 이야기2' 등으로 반전 기대

기온은 올라갔지만 한국 영화의 저게은 증세는 지난 주말에도 여전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의 전국 관객 수를 집계한 주간 박스오피스에서 '스타트렉 다크니스'(50만7571명)와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33만9967명), '에프터어스'(32만5906명)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세 편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또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주연한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 '위대한 개츠비'는 5위(12만1884명)에 자리 잡았다.

한국 영화는 엄정화·김상경 주연의 '몽타주'가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4위(28만6987명)로 외화들의 틈바구니를 어렵게 비집고 들어갔다. 누적 관객수는 189만8466명으로, 상영 3주 만에 200만 고지를 바라보게 됐다.

김수현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옴니버스 호러물 '무서운 이야기2'가 함께 개봉될 5일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가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타트렉', '동이' '아이언맨 3' 만큼 파괴력이 강하지 않아 주 타깃으로 삼은 10~20대 관객들이 호응해준다면 전세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할리우드판 '도둑들' 국내 관객 맘 훔친다

'나우 유 씨 미' 8월 개봉

범죄 액션 스릴러 '나우 유 씨 미: 마술사기단'이 8월 중순 국내에 상륙한다.

이 영화는 파리에 있는 은행 금고의 2000억원을 훔친 라스베이거스 마술팀과 FBI의 숨 막히는 대결을 박진감 넘치게 그린다. 소셜 네트워크'의 제시 아이젠버그와 '어벤져스'의 마크 러팔로, '다크 나이트' 시리즈의 모건 프리먼과 마이클 케인 등 신·구 연기파들의 변함을 거루며 '인크레더블 헐크'와 '타이탄'의 루이스 리터리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 주말 개봉된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선 상영 사흘 만에 2845만 달러(약 316억원)를 벌어들이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라 전 세계적인 흥행을 예약했다. /조성준기자

빅뱅

동방신기

빅뱅·동방신기 일본 돔 점령 경쟁 '앗 뜨거'

빅뱅과 동방신기의 일본 돔 점령 경쟁이 뜨겁다.

동방신기가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5개 돔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빅뱅은 11월부터 6개 돔 투어 '빅뱅 재팬 돔 투어 2013~201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빅뱅은 11월 16~17일 세이부돔을 시작으로 오사카 교세라돔, 후쿠오카 야후오크돔, 나고야돔, 도쿄돔, 삿포로돔 등에서 15회 공연한다. 총 예상 관객 수는 72만1000명이다.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6개 돔 투어는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일본 아티스트 중에서도 그룹 미스터 칠드런이 유일하다.

또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은 국내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 4대 돔 투어를 최근 마쳤다.

동방신기의 위용도 만만치 않다. 4월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3 ~타임~'에 돌입한 이들은 삿포로돔, 나고야돔, 후쿠오카 야후오크돔, 오사카 교세라돔, 도쿄돔 등 5개 돔 구장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공연한다.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은 돔보다 큰 7만5000석 규모로 이곳에서 공연하는 해외 가수는 동방신기가 최초다. 동방신기는 이번 투어로 총 85만 관객을 동원할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

'여름사냥' 나서는 레인보우

오늘 컴백 앞두고 물총싸움 NG컷 공개

걸그룹 레인보우의 '여름사냥'이 시작된다.

레인보우는 첫 정규 앨범 '레인보우 신드롬-파트2'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공식 트위터에 타이틀곡 '선샤인'의 미공개 앨범 사진을 공개했다. '레인보우 컴백 D-1. 올 여름은 레인보우와 함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김재경과 고우리가 서로에게 물총을 쏘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앨범에 담지 않은 NG 컷이지만 레인보우의 컴백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특별히 공개됐다.

4일 베일을 벗을 신곡 '선샤인'은 레인보우가 데뷔 이래 처음 도전하는 여름 시즌송이다. 이달 들어 걸그룹들이 줄지어 컴백하는 가운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노래는 시크릿의 '마돈나', 시에나 '별빛달빛' 등을 만든 강지원·김기범 콤비가 작곡했다. /유순호기자 suno@

'일밤' 일요 버라이어티 1위

1~2부를 통합 방송한 MBC '일밤'이 일요 버라이어티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3일 시청률 집계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부터 세 시간여 동안 1부 '아빠! 어디가?'와 2부 '진짜 사나이'를 처음으로 중간 광고 없이 합쳐 방송한 '일밤'은 전국 기준 13.3%의 시청률을 기록해 이 시간대 1위에 올랐다.

같은 시간에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와 SBS '일요일이 좋다'는 모두 9.3%로 집계됐다.

1·2부가 연이어 방송되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일밤'은 그동안 중간에 약 12분가량 광고가 나갔다. /최진원기자 sak0427@

모던한 이탈리아를 만나다

명소 탐방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스카이라운지 재개장

최근 리뉴얼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의 30층 스카이라운지에 들어서니, 마치 작은 이탈리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이탈리안 음식을 내놓는 차원을 넘어서 인테리어, 음악, 분위기 모든 부문에서 현대적인 이탈리아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하늘을 닮은 푸른빛 조명이 내부를 은은하게 밝혔다. 카펫과 테이블 카운터에도 블루 컬러가 사용돼 통일감을 유지했다.

이번달 리뉴얼 오픈과 함께 새로 부임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셰프 페더리코 로시가 "현대적인 이탈리안 요리로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포부대로, 로시의 셰프 특별 메뉴는 정통과 변화를 오가며 입을 즐겁게 한다.

재료의 맛을 최대로 살린 버팔로 모차렐라 치즈를 넣은 랍스터 샐러드는 이탈리아 요리 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맛에 대한 편견을 깬다. 오렌지빛 호박 크림 수프는 대구 살을 넣어 풍미를 강조하고, 양파 콤포트와 레드 베리 소스를 넣은 국내산 한우 안심 스테이크가 메인을 장식한다.

인터컨티넨탈 스카이라운지는 모던함을 추구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해 '제대로 된 이탈리안 식당인지 알아보려면 빵과 커피를 확인하라'는 말에 딱 맞는 곳이다. 토마토 퓨레를 곁들인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는 치아바타와 치즈 포카치아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식후 커피는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일리의 원두를 사용해 풍부한 크레마와 깊고 진한 향을 자랑한다. /권보람기자

모공 잡는 베네피트 '포어 컨설팅 무료' 코스메틱 브랜드 베네피트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공의 잔주름을 가려주는 제품 '더 포어페셔널'을 선보이고 있다. 베네피트는 6월 한 달간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모공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굿바이 모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라니아 웅진플레이도시 새모델로

웅진플레이도시가 걸그룹 라니아를 워터파크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라니아의 섹시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웅진플레이도시의 다양한 매력과 잘 어울린다"고 모델 선정 배경을 밝혔다. 라니아는 최근 진행된 CF 촬영 현장에서 걸리쉬한 비키니를 소화하며 58m 길이의 대형 슬라이드를 수차례 탑승하는 등 활달한 모습으로 스태프들에게 '예능 너자이저'라는 찬사를 받았다.

라니아 멤버들은 "신규 앨범 '저스트 고' 활동과 미국 진출 준비로 바쁜 와중에 워터파크에서 신나는 휴가를 즐긴 기분"이라면서 "실내 스키장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도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웅진플레이도시와 라니아가 함께한 CF는 이달부터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효순기자

타이완 5대 항구도시 중 하나인 지룽의 야시장 /사진=관광청 제공

올휴가 동남아의 유혹

베트남 취항 노선 다양화 타이완 '푸퉁푸퉁 24시…' 스리랑카 실론차밭 트레킹 각국의 신선한 매력 손짓

동남아시아 여행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눈을 씻고 볼 일이다. 동남아국가 관광청과 항공사들이 더 풍성하고 저렴해진 관광 상품과 이벤트를 알리며 올여름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베트남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인천~다낭 신규 노선을 취항한다.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대한항공과의 코드셰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여행하고자 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취향에 맞춰 다음달 7일부터는 다낭~캄보디아 씨엠립 신규 노선 운항을 시작하는 등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관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타이완관광청은 '푸퉁푸퉁(두근두근) 24시 타이완' 이란 슬로건 아래 한국인 관광객을 유혹한다. 타이완 6개 관광 명소에서 발급하는 스탬프를 모두 모아 8월 31일까지 타이완관광청 서울 사무소로 발송하면 추첨을 통해 자이언트 자전거, 진주나이차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제공한다. 앞서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시정부관광청은 국내 17개 여행사와 손잡고 기존 상품보다 최대 40% 저렴한 자유 관광 상품 '펀 타이베이'를 선보였다.

최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타이완관광설명회'에서 주한 중화민국대표부 양영빈 대사는 "2010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송산~김포 노선 개설 및 무비자 방문 기간 90일 연장 등 한국과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여행책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2013년 방문해야 할 첫번째 여행지'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휴양지이지만, 긴 비행 시간(약 16시간)과 오랜 내전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치안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2011년 7500여 명에 그치던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1만5000여 명으로 늘었다.

부처님의 치아를 모신 '불치사' 등 불교 성지순례지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클럽 중 하나인 로열 콜롬보 골프장, 실론 지역 차밭 트레킹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레저 상품도 개발 중이다.

이에 앞서 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필리핀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닐라와 세부에 이어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디비오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 관광업계와 힘을 합쳐 다양한 상품 개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KTX타고 부산 가면 호텔·크루즈 할인

부산관광공사·코레일 연계 25개 업소 최대 70% 할인

조금 이른 여름 휴가로 부산 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각종 할인 혜택이 함께하는 KTX 상품을 눈여겨봐야겠다.

부산관광공사와 코레일은 부산지역 호텔·크루즈, 음식점 등 25개 업소를 최대 70%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부산가자, KTX타고' 프로모션 특가 상품을 27일까지 판매한다.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산관광공사 엄경석 사장은 "산·강·바다를 간직한 천혜의 도시 부산을 더 많은 내국인 관광객에게 알리고자 '부산가자, KTX타고'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특히 부산의 숙박·음식·문화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KTX 특가상품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 특가 상품은 27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기차여행 코너에서 화·수·목요일에 운행하는 서울~부산 KTX 승차권을 구매한 뒤 바우처를 인쇄해 가면 부산 시티투어 무료 이용을 비롯해 건오써클라우드호텔(70%), 호텔농심(60%), 판스타 크루즈(최대 3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입장권과 경마체험권도 무료로 증정한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에 이어 7~8월 바다, 9월 쇼핑, 10월 부산국제영화제, 11~12월 맛집을 테마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권보람기자

'올킬' 악마 베이스 본 50만 뷰티족 깜짝!

라라베시 신제품 10일 출시 앞두고 테스트 후기 호평 쏟아져

수분크림으로 유명세를 탔던 라라베시가 이번에는 '악마 베이스'로 뷰티족을 사로잡았다.

화장품 브랜드 라라베시는 "최근 론칭을 앞두고 공개한 악마 베이스 제품 동영상이 누적 조회 수 50만 건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CC크림 쿠션 파운데이션보다 월등"

이 영상은 악마 베이스가 BB크림·CC크림·파운데이션 등 기초 메이크업 제품을 모두 올킬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20년 경력의 메이크업아티스트 유향희씨와 슈퍼모델 장지은씨, MBC스포츠플러스의 김민아 아나운서의 사용 리얼 후기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주요 뷰티 파워 블로거들에 따르면 악마 베이스는 CC크림의 원조인 명품 브랜드 C사의 제품보다 제형이 가볍고,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인기몰이 중인 H사와 비교해볼 때 월씬 피부더러워게 마무리된다. 또한 '정려원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 E사의 제품보다 커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라베시 관계자는 "악마 베이스는 론칭 전부터 전문가의 증언과 소비자들의 테스트 후기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출시 이후 제품력을 당당히 인정받으면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라라베시의 악마 베이스는 10일 공개되며, 제품 정보는 라라베시는 공식 홈페이지(lalaves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70-4142-6240 /박지은기자

짧은 옷의 폭로, 막아줘 ㅠㅠ

여름을 준비하는 뷰티 에티켓

여름이 오는 속도가 거의 LTE급이다. 불룩한 뱃살, 겨드랑이 냄새, 구석구석 거무스름하게 자란 털까지 점점 가벼워지는 옷차림에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늘어간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여름철 진상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 더 늦기 전에 완벽한 보디케어로 당당한 여름을 맞이해보자.

얇아진 옷 밖에 삐뚤러 튀어 나와 비쪽 힘을 줘도 소용이 없다. 허벅지·엉덩이의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도 미찬가지다.

로레알파리 '수블림 바디'는 하루 한두 번 마사지하듯 바르면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뱃살을 탄탄하게 잡아준다. 전신용·복부 전용 보디젤·보디스크럽 등 총 3종으로 카페인 성분이 피부에 긴장감과 활력을 준다. 특히 보디젤은 페퍼민트 잎 추출물을 함유해 쿨링 효과까지 제공한다.

보디젤-처진 뱃살에 탄력
하이드로 면도기-털 깔끔
데오드란트-겨땀 냄새 '후'

스타킹을 벗고 맨다리를 드러내야 하는 계절. 제모는 필수다.

털복숭이가 아니라면 여성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다. 하지만 셀프 제모의 단점은 피부 자극과 건조함. 여성용 면도기 쉬크의 '하이드로 실크'는 면도날 위아래에 삽입된 2개의 모이스처라이징 볼에 물이 닿는 순간 녹아 나와 피부를 보호하고, 제모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5중 면도날이 닿기 어려운 부위도 효과적으로 면도해준다.

여름철 가장 큰 고민은 '겨땀(겨드랑이 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옷과 불쾌한 냄새는 기분까지 망친다.

니베아의 '데오드란트 블랙 앤 화이트'는 피부를 보송보송하게 지켜줘 민소매에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독일 섬유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인티 화이트 미크와 안티 멜로 스테이닝 기술을 적용, 옷에 번 땀을 케어해 얼룩과 냄새를 막아준다. /박지원기자 ssw@metroseoul.co.kr

너비아니 테이크아웃 하세요

강강술래 포장상품 할인 한우 떡갈비 등 30% 저렴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경기불황 속 고객들의 가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포장 상품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모든 매장에서는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철판한우떡갈비(360g)'와 흑임자·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를 각각 30% 할인된 1만4000원과 8400원에 판매한다.

서초점은 LA식 갈비 포장 상품(1.8kg)을 2만4000원, 술래양념 포장 상품(16대 1.4kg)을 4만8000원 등 반값에 판매한다. 상계점은 한돈양념구이 포장상품(500g)을 1만5000원, LA식 갈비 포장 상품(900g)을 1만4000원 특가로 제공한다.

시흥점은 6월 말까지 신메뉴인 '제주생(生)통갈비(230g)'를 25% 할인된 1만2000원에 판매하며, 묵은지 김치찜 메뉴도 약 30% 할인된 5000원에 공기밥을 무한 리필해준다.

호국의 달을 맞아 현충일(6일) 하루 동안 예상점은 왕양념갈비를, 서초점·여의도점은 한우광양불고기·왕양념갈비·한우모듬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000원 등 30% 할인가로 선보인다.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6봉)'도 30% 할인된 2만5200원에 판매한다.

시력교정수술 전문병원인 아이피디안과와 손잡고 '밝은 세상 건강한 눈 만들기 캠페인'도 벌인다. 6월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글을 올리면 라식 수술 및 눈 종합검진권을 증정한다.

수제화 바바라 패밀리 세일 온가족 새신발 갈아 신는날

9~11일 최고 70% 가격 낮춰

수제화브랜드 바바라(BABARA)가 9일부터 11일까지 패밀리 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패밀리 세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여성 플랫슈즈, 샌들, 부츠를 비롯해 남성화·아동화까지 바바라 전 품목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바바라 관계자는 "지난해 패밀리 세일이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 행사는 성인화 전품목 6만9000원, 아동화 2만9000원 등 파격 균일가로 진행돼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면서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알뜰한 구매찬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발급되는 번호표를 추첨해 매일 3명에게 바바라 슈즈를 선물로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날 오후 3시에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abaram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K2 워킹화 알파·제타 "등산화가 따로 없네"

K2가 등산화의 기능을 갖춘 신개념 워킹화 2종 '알파'(19만9000원)와 '제타'(13만9000원)를 선보였다.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춘 밑창을 사용하고, 발목을 보호하는 안티트위스트 시스템을 적용했다. 쿠션감은 뛰어나면서 무게는 약 15% 줄인 신소재를 써 일반 등산화보다 100g 이상 가볍다. 또한 기존에 발뒤꿈치에만 적용했던 구션을 중창 전체에 사용해 안정감을 높였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3일자 13면에 게재된 '잘나가는 샌드위치 먹고 꿈 가자' 기사 중 1등 당첨자 '30명'을 '3명'으로 바로잡습니다.

'중동 킬러' 이동국 선봉!

내일 새벽 레바논전 4-2-3-1 가동… 세트피스 방어 중점훈련

'라이언킹' 이동국(34·전북)이 레바논전 공격 선봉에 선다.

최강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5일 오전 2시30분(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레바논전에서 4-2-3-1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동국이 최전방 원톱으로 나선다. 이어 이근호(상주 상무)·이청용(볼턴 원더러스)이 좌우 날개를 맡고, 김보경(카디프시티)이 섀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한다.

더블 볼란테로 베테랑 김남일(인천)과 신예 이명주(포항)가 짝을 이루고, 포백 라인은 김치우(FC서울)·곽태휘(알샤밥)·정인환(전북)·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차례로 선다.

최 감독은 두바이에서 시행 중인 치른 전지훈련에서 세트피스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다듬었다. 그동안 레바논은 페널티지역 근처에서 반칙을 유도해 프리킥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코너킥이나 페널티지역 근처에서 얻는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는 약체가 강호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한국은 2011년 11월 레바논과의 3차 예선 원정경기에서 프리킥 때문에 경기 초반에 실점한 뒤 우왕좌왕하다가 1-2로 무너진 바 있다.

레바논은 지난해 9월 이란과의 최종예선 홈경기에서도 전반 28분 모하메드 하이다르가 페널티박스 오른쪽 외곽에서 올린 프리킥을 로다 안타르가 헤딩골로 연결해 1-0으로 이겼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5일 새벽 열리는 레바논전에서 최강희호 의 중심축을 이룰 베테랑 곽태휘·이동국·김남일(왼쪽부터)이 국내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판 거른 류현진 8일 출격
다저스 홈런 4방에 와르르

부상으로 3일 등판 일정을 미룬 류현진(26·LA 다저스·사진)이 8일 오전 11시10분(한국시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홈경기에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큰 부상은 아닌데 아직 발목에 통증이 있다"며 "이번주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며칠 뒤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생각보다는 류현진의 발목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류현진을 대신해 선발 등판한 맷 매길은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동안 홈런 4방과 볼넷을 9개나 내주며 7실점으로 무너졌다. 다저스는 2-7로 완패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KIA 침몰 '김상현의 저주'인가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처음에는 잘나갔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요즘 KIA 야구를 보는 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도대체 왜 갑자기 부진에 빠졌고, 왜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는가. 돌아켜보면 김상현 트레이드 이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은 KIA였다.

트레이드 이후로 KIA는 20경기를 통해 6승14패의 낙제 성적표를 받았다. 김상현을 내주고 불펜의 보강책으로 데려온 송은범이 두 번의 블론세이브를 했다. 언더핸드 신승현이 호투행진을 펼쳤지만 지난 1일 경기에서 무참하게 깨졌다.

선발진도 마찬가지다. 양현종을 제외하고는 네 명의 선발진이 모두 부진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다. 서재응·김진우·윤석민·헨리 소사가 돌아가며 부진했다. 선동열 감독은 보좌 트리오 가운데 한 명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불펜도 무너졌다. 2일 경기에서 소방수 앤서니 르루는 4-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9회 동점을 허용했다. 8회부터 등판해 볼을 많이 던지다보니 구위도 현격하게 떨어졌고 5-4 대역전패로 끝이 났다.

타선은 평균 3득점에 그치고 있다. 이용규와 최희섭의 부진. 여기에 신종길과 김원섭까지 부상 이탈자가 생겼다. 이범호의 부진까지 겹치며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이것은 '김상현의 저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OSEN 야구전문기자

배상문 US오픈 출전 불발

배상문(27·사진)의 US오픈 출전이 좌절됐다.

배상문은 3일 발표된 세계골프랭킹에서 76위(1.96점)를 기록, 지난주 65위에서 11계단이나 하락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2주 전에 세계랭킹이 64위였지만 이후 2개 대회에서 부진해 랭킹이 떨어졌다.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은 세계랭킹 60위 이내에 들어야만 출전이 가능하다.

카리 웹 2년 만에 우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의 베테랑 카리 웹(39·사진)이 모처럼 우승트로피를 추가했다.

웹은 3일 열린 숍라이트 클래식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타를 줄였다. 합계 4언더파 209타를 기록한 그는 전날 단독 선두였던 펑산산을 2타 차로 제치고 올 시즌 첫 승이자 LPGA 투어 통산 39승째를 거뒀다. 2011년 3월 RR 도넬리 파운더스컵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의 우승이다. 한국선수 가운데는 박희영이 3위(1언더파)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illegible]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32 I'm anxious to know what your decision is. 결정하기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해요.
저는 당신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싶어요.
우린 당신의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해요.
그는 제 결정에 영향을 끼칠만한 어떤 말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m confident you've made the right choice.
I want to persuade you to change your mind.
We're willing to accept your decision.
She refuses to change her mind.
He didn't want to say anything to influence my decision.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빈칸 대화 훈련

문장 속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I've decided not to go to the conference.
B We're 기꺼이 받아들이는 your decision.

정답 willing to accep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m [confident / positive] you've made the right choice.

2 She [refuses to / is afraid to] make up her mind.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2

Business English 데미덱 이메일사전

링크 주소가 잘못 되었을 때
If you've got a wrong link address.

보내 주신 링크는 연결이 안 되는군요.
The link you sent me doesn't work.

잘못된 링크를 보내셨어요.
You sent me the wrong link.

그 링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The link is dead.

링크가 깨진 듯해요.
The link seems to be broken.

저희 회사의 방화벽 때문에 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My company's firewall won't allow me to access that link.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report, sales of snacks have increased by ______ five percent.
(A) firmly (B) nearly
(C) strongly (D) completely

02. ______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real estate market saw a rise in profits over the past quarter.
(A) All (B) As
(C) Either (D) Both

01. 가장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스낵류의 매출이 거의 5퍼센트 정도 증가했다.
해설 문맥상 '약 5%가' 적절하므로 '거의'를 의미하는 (B) nearly를 써야 한다. '약, 대략'을 의미하는 about과 approximately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어휘 according to ~에 의하면 sales 명 매출 firmly 부 견고하게, 단단히 strongly 부 강력하게 completely 부 완전히
정답 (B) nearly

02 은행업계와 부동산 시장 모두 지난 분기에 수익 상승을 경험했다.
해설 빈칸 뒤의 and와 짝을 이루어 'both A and B(A와 B 모두)' 구문을 이루는 (D) Both를 써야 한다.
어휘 industry 명 산업, 업계 real estate 부동산 rise in ~의 상승(증가) profit 명 수익 quarter 명 분기
정답 (D) Both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1 문장 읽기

연음 현상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하나하나 따로 발음하지 않고, 한 단어의 끝부분이 다음 단어의 첫부분과 연결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마치 한 단어처럼 연결하여 발음하는 것이 연음입니다.

• 자음+모음

앞단어의 끝부분 자음이 다음 단어의 모음에 붙어서 발음됩니다.

give it a try [gɪv ɪt ə traɪ] /기비러 트라이/ hold on [hoʊld ɑn] /홀단/
call us [kɔːl ʌs] /콜러스/ with us [wɪð ʌs] /위더스/

• 자음+자음

앞단어의 끝부분 자음을 생략하고, 바로 그 다음 단어의 자음을 발음합니다.

has she [hæz ʃi] /해쉬/ just stop [dʒʌst stɑp] /저스탑/
don't know [doʊnt noʊ] /돈노우/ attend the [ətend ðə] /어텐더/